

임원연수회 및 제2회 이사회 개최 현장

임원연수회는 3월 26일 대전 유성에서 임원연수회를 겸한 낙농육우인 지도자대회를 개최하였다.

임원연수회에 앞서 협회 제2회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제1호 안건은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낙농선진국과의 FTA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의 건. 이에 회장단, 조합장협의회, 학계전문가 등으로 이뤄지는 낙농특위 구성, FTA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등의 개최로 여론조성을 위한 활동, 전

국민적으로 공감대 형성될 수 있도록 농축산단체 연대활동을 강화기로 하는 등 추진동향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여 대응기로 하였다.

제2호 안건인 규정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선거권 위임제도 폐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명문화를 위한 회장선거규정과 회비납부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회원 및 회비규정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제2회 이사회를 갖고 FTA에 대한 대응마련의 건과 규정개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 좌 : "한·호주/뉴질랜드 FTA 대비 낙농산업 영향분석"이란 주제로 특강이 이뤄졌다.
우 : 특강을 맡은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

이사회 이후에는 '한호주/뉴질랜드 FTA 대비 낙농산업 영향분석'의 주제로 건국대학교 김민경 교수의 특강이 이뤄졌다. 김민경 교수는 한호주 FTA 체결시 최대 1,239억원의 생산액 감소, 한뉴질랜드 FTA 체결시 870억원 생산감소, 한호주/뉴질랜드 동시효과 고려시 최대 1,921억원의 생산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 한EU FTA 연계효과 동시고려시 최대 3,274억원 생산감

소, 전체 낙농생산액의 21%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외국의 선례를 통한 협상전략과 전국단위 수급조절을 위한 단일쿼터제, 원유생산비 절감, 유통 및 품질관리, 소비촉진 방안 등 낙농정책의 과제와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는 육우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송아지생산안정제 등 육우를 포함한 쇠고기 대책 중심으로 정부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 좌 : FTA시대에 앞서 낙농제도 개편과 육우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
우 : 농식품부 허태웅 축산경영팀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고 덧붙였다.

특강 직후, 농림수산식품부 허태웅 축산경영팀장과 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전국단위 제도개편과 FTA 대응책, 사료구매자금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학교우유급식과 군급식 등 우유소비 확대 방안, 육우 근출혈 대책 마련 등 농가

들의 여론과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허태웅 팀장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특히 학교우유(보조)급식 차상위 계층 확대 등 우유소비 확대는 낙농산업의 핵심 문제인 만큼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